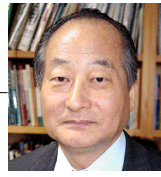


# 고려청자 국화꽃 무량보주는 우주의 총만함 상징

###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국화꽃, 국화당초문 → 영기꽃(보주꽃), 영기문 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화문(菊花文) 모양은 매우 많은데 현실에서 보는 국화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국화꽃 종류에는 한 가지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다른 모양이 있으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국화문 모양은 반드시 국화에만 한정하여 있는 것도 아니다. 국화문의 정체는 지금까지 매화점이 무량보주임을 밝히면서 저절로 풀리게 되었다. 국화꽃 모양이 아니고 무량보주의 조형임을 좀 더 본격적으로 증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흔히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을 보고 '무늬'를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무늬가 전공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무늬라는 조형을 새로이 해독하여 건축 전체, 조각 전체, 회화 전체, 공예 전체 등을 다루고 있으며 조형미술의 모든 장르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있다. 조형미술에서 몇 가지 중요한 조형을 따른 개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보주(寶珠)'이다. 보주의 본질이 풀리니 미술사학의 수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풀려지고 있다. 결국 보주의 올바른 개념을 모르니 현실에서 보는 국화꽃과 비슷하다고 하여 국화꽃이라 부르거나 매화꽃 같다고 하여 매화점이라 부르고 있으므로 그 조형의 상징적 의미를 밝힐 수 없었다. 국화꽃 모양이 왜 보주꽃인지 그 성립하여가는 과정을 명료하게 밝혀보려 한다. (도 1)

그러면 특히 고려청자 가운데 국화문이

라고 흔히 부르는 조형이 많은데 그 모두가 영기꽃, 즉 보주꽃이다. (그림 ② ③ ④ ⑤) 영기꽃(靈花)이라는 것은 표상적인 개념으로 영화된 모든 꽃을 뜻한다. 왜 영화된 꽃이나 하면 모든 꽃의 중심에는 씨앗을 무량하게 지닌 씨방이 있는데 그 씨앗들이 보주들로 변하는데, 즉 매우 고차원적 변화를 이루므로 보주꽃[寶珠花]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보주나무(寶珠木)라는 용어도 만들어낼 수 있다. 심층은 가지만 오래 동안 그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 노력하였으나 좀처럼 발견할 수 없었다. 과연 국화꽃 모양이 국화가 아니고 보주나무라는 것을 명징하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러던 차에 2012년 가을,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천하제일 고려청자> 기획전에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작품을 감격스럽게 찾아낼 수 있었다. (그림 ⑥-1)

그 고려청자 점시의 중심에 삼각형 조형을 백묘(白描)하고 채색분석하여 보았다. (그림 ⑥-2) 그 조형의 전개과정을 다음에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① 중심의 무량보주(無量寶珠) 안에 작은 알갱이 같은 검은 색 보주들이 네 군데 있으며 중심에 빨간 색 보주들이 다섯 개 있으며 주변에 네 개의 잎이 있는데 국화꽃의 잎 같지만 실은 제3영기꽃이다. ② 즉 제2영기꽃 갈래에서 만물이 생기는 조형을 잊처럼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만물 생성의 근원인 중요한 보주들과 제3영기꽃들이므로 중심에 집중하여 모여 있을

수가 있다. ③ 그 무량보주의 양쪽에서 강력한 영기문이 발산하고 있다. ④ 봉황의 꼬리는 영기문으로 길게 뻗어나고 있는데 실은 이 꼬리의 영기문에서 봉황이 화생하고 있는 것이다. ⑤ 꼬리의 영기문의 전개 원리는 제2영기꽃이 두 번 연이어 나오다가 한 줄기 영기문이 길게 뻗어나가는 제2영기꽃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기문의 표현원리를 틀림없이 따르고 있다. ⑥ 봉황의 부리는 '보주 꽃' 가지를 물고 있는데 끝에 둥근 빨간 보주가 있다. 그러나 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량한 보주를 발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⑦ 즉 봉황에서 무량한 보주가 나오는 것을 중앙의 무량보주의 조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⑧ 무량보주를 중심으로 두 봉황이 회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우주에 총만한 영기의 역동적 대 순환을 상징한다. ⑨ 이 도상은 큰 원 안에 있는데 큰 원은 영기창(靈氣窓)이다. 즉 영기창을 통하여 대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국화꽃'이 올바르게 읽는 용어라면 국화꽃들을 각각 끝에 맺으며 전개하는 '국화당초문(菊花唐草文)'이 그릇된 용어임은 자명한 일이다. 다음 회에 그 수많은 국화당초문이 만물을 탄생시키는 영기문임이 밝혀야 한다. 회화는 물론 도자 공예, 금속공예, 나전칠기, 복식 등에 보이는 수많은 국화문이란 용어로는 한국미술 더 나아가 일본미술이나 중국미술은 풀리지 않는다.

일할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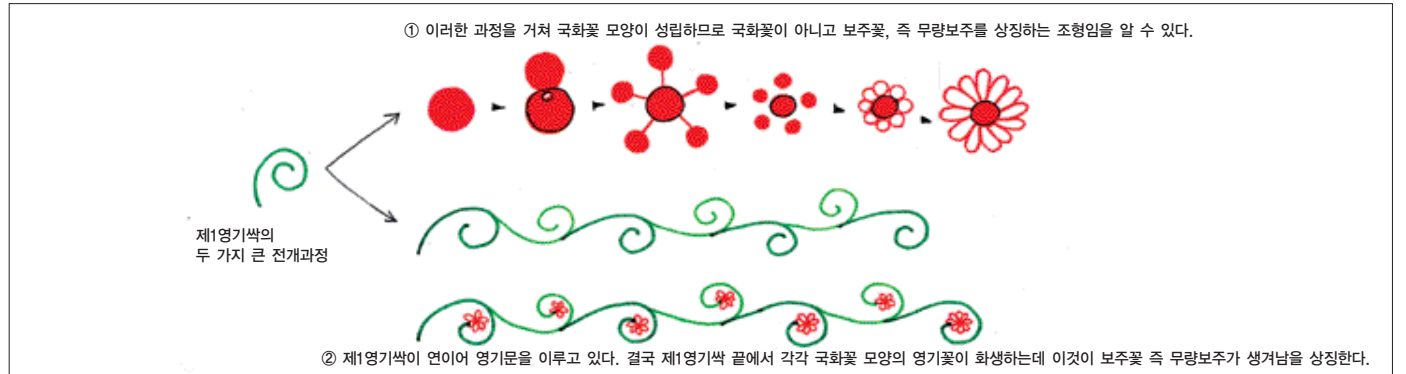


그림 ① 제1영기꽃이라는 조형언어의 두 가지 전개과정



그림 ②. 고려청자 함, 중앙의 것이 국화가 아니고 보주꽃.



그림 ③. 고려청자 함, 모두가 보주꽃, 그래서 주변에 보주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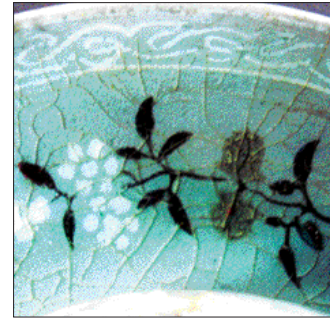


그림 ④. 고려 청자 잔 받침, 보주꽃 (우리가 매화점이라고 잘못 부르고 있는 조형)이 무량보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⑤. 보주꽃과 보주꽃 봉오리-봉오리가 바로 보주이다.



그림 ⑥-1. 봉황의 입에서 무량한 보주가 발산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그림 ⑥-2. 채색분석

## 藥 이 되는 사찰음식



### 부각

△재료(4인 기준)  
○ 김(다시마) 10장, 당귀 100g  
○ 찹쌀풀(다시마국물 2컵, 찹쌀가루 1컵, 콩가루 3큰술, 국간장 2큰술)

### △만드는 법

① 다시마국물에 찹쌀가루와 국간장, 콩가루를 넣어 끓으면 중약불로 낮추어 5분 정도 끓인 후 완전히 식힌다.  
② 김은 4등분 후 찹쌀풀을 얇게 입혀 3장 정도를 겹쳐 바른 후 통깨를 뿌린 후 그늘에서 말린다. 앞면이 마르면 뒷면에 풀칠을 한 번 더 해서 말린다.  
③ 당귀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없앤 후 찹쌀풀을 두세번 덧발라 그늘에서 말린다.

## 식이섭유 부각 변비에 효능

④ 잘 건조된 부각은 그냥 먹어도 좋고 기름에 살짝 튀겨 먹는다.

### 부꾸미

△재료(4인 기준)  
○ 찹쌀가루 2컵, 물 1/3컵, 소금 1/2작은술, 치자, 백련초, 속가루 등  
○ 소 - 삶은 거피팍 1컵, 유자청 다진것 2큰술, 소금 약간

### △만드는 법

① 찹쌀은 소금을 넣어 골고루 섞은 후 뜨거운 물을 부어 많이 치대어 반죽을 한다.  
② 색을 들일 경우 치자나 백련초, 속가루 등 천연 색소를 넣어 반죽을 한다.  
③ 거피팍은 깨끗이 씻어 5시간 정도 불



린 후 김으로 찜수에 15분 정도 쪄 다음 소금으로 간을 한 후 다진 유자청을 넣어 단맛과 촉촉한 정도의 농도를 낸다.  
④ 찹쌀은 직경 5cm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 프라이팬에 앞뒤로 익혀낸다.  
⑤ 익힌 찹쌀 전병에 납작한 모양으로 소를 넣고 양쪽 가장자리를 접어 모양을 만든다.

## 손쉽게 만들어 먹는 간식 '부꾸미'

부각은 신선한 재료에 삭힌 찹쌀풀을 골고루 발라 발리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어서 예로부터 귀한 손님상에 올리는 음식 중의 하나였다.  
부각은 고소하고 바삭거리는 담백한 맛이 특징으로 주재료는 해조류나 산간 약용 식물 등을 사용하여 반찬이나 영양간식 등의 웰빙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각은 알카리성 식품으로 체질의 산성화를 막고 각종 풍부한 무기질과 섬유질 성분이 많은 식이섬유 식품으로 변비에 유효하고 피부를 윤곽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  
조리시 주의할 점은 튀길 때 발연점이 너무 높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낮은 온도에서 튀기게 되면 흡유량이 많아져 바삭한 맛이 사라지고 반면 너무 높은 온도에서 튀기면 타기 쉬우므로 적정온도에서 재빨리 튀겨내야 한다. 대표적인 부각으로

김이나 다시마를 많이 사용하는데 다시마는 예로부터 피를 맑게 하고 혈압을 내리는 식품으로 오랫동안 먹으면 체중감소 등의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  
부꾸미는 찹쌀가루나 수수가루 등을 반죽하여 동그랗게 변형 즉, 프라이팬에 구운 지진떡으로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많이 알려져 왔다. 부꾸미 반죽에 수수 등의 주재료를 사용함에 따라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는데 수수 등의 잡곡을 섞어 쓸 경우는 반죽시 물의 첨가량이 증가되며 오래 치대어 반죽해야 쫄깃한 느낌의 부꾸미가 된다.  
소의 경우는 기호에 따라 팔, 녹두 등 다양한 곡물을 사용할 수 있고 꿀이나 설탕 등으로 촉촉한 정도로 반죽을 해야 잘 굽지 않고 부드러운 떡이 될 수 있다.



김은연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종 योग미술

##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동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http://www.msjy.co.kr)

## “이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은 인식의 표상에 불과하다”

### 불교심리학의 정수 유식삼십승 唯識三十頌 강의

이계목 역해  
246\*178mm | 흑백 | 332쪽 | 15,800원

### 마음 밖에 따로 대상이 없음을 설한 대승 심리논서

대승을 막론하고 <유식삼십승>은 불자라면 꼭 연구해야 할 필독서다. 마음을 닦아, 마음을 깨달아 안심(安心)을 얻고 완전한 자유를 얻는 불교심리학의 정수가 바로 이 경전에 담겨 있는 까닭이며, 마음을 주제로 하여 교학을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유식삼십승 해설은 동학사 강원본을 참조하였으며 일본 龍名大學 불교학 교수인 深浦正文의 唯識三十頌論 解説本을 관 응노사가 번역한 譯本(역본)을 참고하여 현대어로 풀어 엮었다.

비움과소통 [www.facebook.com/BiumSolong](http://www.facebook.com/BiumSolong) (02)2632-8739

##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 바른 불자, 누구나 공경할 108진참회문

108진참회문  
The 108 Recitations of Repentance  
108眞仟悔文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잡이!  
-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누구나 공경할 33가지

108배와 함께 하면 전생의 악연이 사라져 모든 장애가 없어지게 하는 108 참회문

108 진(眞)참회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저서는 현재 31종 6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http://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 010-9043-1016